



| 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 강원석 대리 |

서·적·소·개

『전투기의 이해』

당신이 전투기에 대해 알고 싶었던, 알아야 했던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기를 통해 항공기라는 기계를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민항기들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하고, 강력한 항공기인 전투기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투기의 특정 기종이나, 그 전투기들이 싸운 항공전 역사를 해설한 책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존의 서적을 모두 독파하고 더 심도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국내 서적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테면, 자료를 보면 제0세대 전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대의 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전투기와 비슷하게 생긴 항공기로 ‘공격기’라는 것도 있고, ‘전투 폭격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과 전투기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스텔스 전투기는 어떤 원리로 레이더를 피하는가? 전투기와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들의 성능은 어떻게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전투기는 전투할 때 어떤 편대대형을 지을까? 전투기는

어떤 원리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가?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전자장비는 민수용 전자장비에 비해 성능이 어떻게? 어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공기역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 미래의 전투기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다못해 화장실이 달린 전투기는 있을까? 등등 끝도 없는 의문이 발생하지만 기존의 자료서적들은 그런 의문을 해결해 주기에는 미흡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고 독자들이 모두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항공공학을 전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의문을 풀려면 기존의 특정 기종 위주, 전사 위주의 집필방향을 벗어나, 좀 더 심오한 전투기의 기본원리, 개념 위주의 해설서가 필요하지만, 그런 책은 대단히 전문적인 필자에 의해 저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쓰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발매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독자층을 상대로는 수요가 불충분하다. 때문에 적어도 국내에서 '전투기'라는 항공기 장르 내에 들어가는 모든 원리와 이론을 하나로 망라한 성격의 서적은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 권으로 전투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투기 총서'가 발간되었다. 그동안 동서고금의 전투기들에 대한 연재 시리즈로 본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던 임상민 씨가 내놓은 신간 <전투기의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상하권 1집로 구성된 이 책은, 상권에서는 전투기의 개념과 역사, 항공역학과 추진, 전투기의 무장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하권에서는 전투기 항공전자, 전투기 전투효과, 그리고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다룸으로써 누구나 전투기라는 항공기 장르에 대해 기존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심도있는 지식을 구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또한 부록으로 나오는 알기쉬운 전투기 상식, 전투기 연표, 현대 전투기 및 항공무장 제원과 명명법, 약어 해설 등은

이런 류의 책들이 자칫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 '기초지식'을 다지는 데에도 엄청나게 유용한 코스이다.

전투기에 에어컨이 있을까? 화장실 있는 전투기도 있을까?

전투기와 항공무장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질까? LAM은 뭐고 HUD 등의 전문용

어는 도대체 뭘까? 이 책 한권을 보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다. 기존의 자료서적으로는 기적 같음을 충족시키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전투기에 대해 보다 심오한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전투조종사, 항공공학 전공학생, 항공연구가, 심지어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이머들까지 아우르는 각종 항공종사자들의 필독서가 탄생한 셈이다.

상하권 합쳐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풀컬러로 처리, 1,000여장이 넘는 각종 일러스트레이션 및 자료사진도 다수 수록되어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 또한 쏠쏠하다.

저자 임상민 씨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재원으로서, 현재 공군 국방안보기술 자문위원, (사)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 디펜스코리아(www.defence.co.kr) 항공무기체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군본부, 항공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에서도 자문,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본지를 포함해 <월간항공>, <디펜스타임즈>, <밀리터리리뷰>, <플라이 투게티>, <날뜰> 등 각종 항공 및 군사매체에 항공무기체계에 관한 원고를 기고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로는 <병기 지식 ABC-항공병기편>(군사정보 펴냄, 1999년)이 있다. ☺

